

2008년 06월 30일 (월) 17:03 [연합뉴스](#)

<"문학지원, 창작-향유 통합적 시각 필요">

예술지원정책 첫 릴레이토론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예술 지원정책에 있어 창작과 매개, 향유는 통합적 관점에서 인식돼야 합니다"

도종환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은 3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최로 서울 대학로 아르코미술관에서 열린 예술 지원정책 릴레이토론회의 문학분야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홍정선 인하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현행 문학 지원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지원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문학을 비롯한 예술 지원정책에서 창작 지원과 향유 지원의 비중 문제에 대해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도 총장은 이달 초 순수예술 육성을 위한 문화부 주최 토론회에서 정광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예술 지원정책이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하며 창작과 향유의 통합적인 시각을 강조했다.

도 총장은 "어떤 전략으로 창작을 활성화하고 예술가의 창조 역량을 강화하며 어떻게 자생력을 확보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좀 더 과학적이고 예술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문학은 개인 창작작업으로 이뤄지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소설가 박금산 씨도 "수요를 불러오는 공급을 창출하는 것이 예술 지원정책의 최고 수준"이라고 견해를 밝히며 "문학 지원은 출간원고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며 간접지원과 사후지원도 늘려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토론자로 나선 문학평론가 박철화 중앙대 교수는 전 정부의 문학 지원정책이 지나치게 창작자 중심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창작자와 수요자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수준 있는 향유자층이야말로 뛰어난 창작품을 이끌어내는 바탕이기도 하다"며 "문학에 대한 지원과 문학인에 대한 지원을 지혜롭게 구분하는 일이 필요하며 작가 지원의 경우 작가의 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방향을 명확히 정해야한다"고 말했다.

문학평론가인 이경호 '작가세계' 주간도 "바람직한 예술의 전달과 수용 역할이 창작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참여만으로 개발되고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이날 토론회의 또 다른 발제자인 오양호 [한국문인협회](#) 평론분과 회장은 9천766명에 달하는 한국문인협회 회원 중 [문예진흥기금](#) 수혜자가 극히 적다는 점을 들어 현재 예술정책이 '그들만의 정책'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오 회장은 문예지와 문인들의 범람을 문제점으로 들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혁파 ▲문예지 고료 지원제도 부활 ▲개인 중심 지원에서 단체 중심 지원으로의 전환 등을 구체적인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또 이경호 주간은 시장친화력이 높으면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창작 수준이 저조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중간문학의 가능성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이 문학과 다른 예술장르의 소통 및 문학의 자생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릴레이토론회는 문학을 시작으로 내달 1일 시각예술과 다원예술, 2일 연극·무용, 3일 음악·전통예술, 4일 국제문화예술교류, 7일 생활 속의 예술·문화복지를 주제로 분야별로

진행되며 11일에는 '제1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종합 토론이 진행된다.

mihye@yna.co.kr

(끝)

[<연합뉴스 긴급속보를 SMS로! SKT 사용자는 무료 체험!>](#)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